구체적인 협력에 주력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를 구축하자

한중일 자매도시회의 연설

삼문협시 인민정부시장 양수평(楊樹平)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본의 나가사키에 모여, 함께 제 12 회 한중일자매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문협시에도 저에게도 처음 가지는 기회이며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가 이렇게 순조롭게 개최된 것에 대하여 삼문협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국, 일본, 중국 대표 여러분 및 각계의 여러분께도 인사말씀 드립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평화, 발전, 협력이 주류로 더욱 주목 받게 되었으며,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협력과 교류는 더욱 활발해 지며 경제의 일체화도 현저하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은 이웃 나라이며 또한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장년에 걸쳐 삼국은 정치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경제, 무역 면의 협력에서도 현저한 성과를 올리며 폭넓은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간의 협력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호 신뢰가 깊어지고,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이 확대됨에 따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분야도 늘어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힘도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협력관계의 진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중국에는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매화는 추위를 거치고 나서 향기를 발한다' 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자매도시관계에 오늘과 같이 바람직한 국면이 태어난 것도 삼국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온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협력을 추진하여 동북아시아 발전을 촉진한다'는 이번 회의의 테마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삼문협시의 기본적 상황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삼문협에 대하여 잘 아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삼분협시는 하남성 서부에 위치하여 하남성, 산서성, 섬서성의 3 성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1957 년에 만리의 황하 제일의 댐 삼문협댐 수리주축 건설과 함께 발전한 신흥 공업도시입니다. 현재 3 현, 2 시, 1 구 및 한 개의 성 관할 경제발전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10,496 ㎢, 인구는 224 만 명입니다. 그 중 중심 시가지 면적은 45 ㎢, 인구는 40 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뛰어난 중국관광도시', '국가정원도시', '중국의 최신 금융 에코타운 톱 10', '사회치안 종합대책 선진도시'로 선택되었으며 '황하의 진옥', '문화의 성지', '백조의 성'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삼문협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앙소문화, 도가문화, 괵국문화, 더욱이 곽씨 성이 모두 이곳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고대 중국의 시조인 황제가 예기인 솥을 주조한 곳이며, 노자의 '도덕경'이 저술된 곳이며, 불교 선종의 시조인 보리달마의 원적지이자 중화민족의 정신적 상징인 중류지주의 소재지입니다. 현재 중요문화재로서 보호대상이 6 곳 있으며, 앙소문화유적, 묘저구문화유적, 괵국의 상양성, 괵국의 묘지 3 대 발굴은 20 세기의 중국 100 대 고고학의 대발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남성 서부의 종이자르기 공예, 천정요동, 영보의 가죽인형 그림자연극과 같은 민속문화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문협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현재 66 종류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매장량은 전국에서 톱 3 에 드는 자원이 31 종류나 됩니다. 또한 고산 사과, 영보 대추, 앙소 살구, 식용 버섯, 한방약재 등 특산품이 내외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황(금), 백(보크사이트), 흑(석탄)은 삼대 우수자원이며, 금의 조사매장량은 360 톤 정도로 매장량, 생산량 모두 전국에서 2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1.9 억 톤으로 알루미늄과 규소의 비가 7 이 넘는 양질의 것이 65% 이상입니다. 석탄 매장량은 11.3 억 톤입니다.

삼문협은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에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와 서부의 관문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황하 중류, 중원의 중심부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서안을 바라보아 예로부터 '장안과 낙양의 두 도시를 손아귀에 쥐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은 대단히 편리합니다. 용해철도, 정주-서안고속철도, 연곽고속도로, 국도 310 호선이 동서로 달리며, 철도 209 호선과, 얼마 후 건설되는 운성-주언철도, 삼문협-석천고속도로가 남북을 연결하여 철도와 도로가 삼종사횡으로 달리는 커다란 십자가형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중서부지역에서 중요한 교통의 중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특산물이 풍부하고 그 품질도 뛰어납니다. 영보의 사과, 대추는 예부터 유명하며, 승지의 앙소 살구, 우심의 감떡은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노시산구는 또한 '천연의 약품창고'로 불리고 있으며 싱싱한 과일과 건물,

질 높은 식용 버섯도 많은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문협의 담배는 하남성의 우량상품으로 중국의 유명한 담배메이커가 양질의 잎담배 원료로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담배 재배는 하남성에서 삼문협이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삼문협시에서는 7 가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7 가지는 전국의 성 직할시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삼문협은 풍광명미한 도시입니다. 역내에는 감산, 아무산, 옥황산과 국가레벨의 도시습원공원과 같은 유명한 자연 명승지가 있습니다. 황하의 급류는 노도와 같이 흐르고, 깎아지는 계곡은 세월의 흐름을 잊고 우뚝 서 있으며, 예서에는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삼문협은 황하 중류에서 사람이 살기 가장 적합한 친환경 산수도시입니다. 매년 겨울에는 수 만 마리의 백조가 월동을 위해 찾아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문화와 환경이 완전히 융합한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휴가에는 꼭 삼문협을 관광하시고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을 기원합니다. 틀림없이 예상 이상의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2. 삼문협시의 자매도시업무 전개

지금까지 본 시는 일본의 기타카미시, 한국의 동두천시와 자매도시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시에 있어서도 대외개방의 귀중한 자원이자 재산입니다. 더욱이 본 시가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데 귀중한 바탕이자 통로입니다. 본 시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대외개방과 경제발전 속에서 자매도시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여 '자매도시업무'를 대외개방과 해외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단계적 실시, 실질적 효과를 중시' 하는 방침을 유지하여 '우호, 호혜, 실효를 중시' 하는 대외교류 원칙을 지켜 자매도시간의 실질적인 교류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본 시와 일본의 기타카미시, 한국의 동두천시 사이에는 우호적인 교류의 기초가 마련되어 우호적인 왕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협력의 성과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80 년대 말부터 기타카미시 정부는 일중우호협회를 통하여 본 시에 양질의 사과 묘목 500 그루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시에서 처음으로 양질의 과수원 '우호의 사과 밭'이 탄생하였습니다. 본 시는 모두 6 명의 과수재배 기술연수생을 기타카미시에 파견하여 과수재배와 관리기술을 배웠습니다. 연수생은 귀국 후 몸에 익힌 새 기술을 바탕으로 본시의 사과생산지구에서 신품종 개량과 육성, 병충해대책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에서도 3 번에 걸쳐 기타카미시에 앙소 살구 묘목 300 그루를 기증하여 기타카미시에는 '우호의 살구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기타카미시의 일중우호협회에서는 본시에 600 만 엔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본 시는 이 자금을 이용하여 섬주공원에 '우호원'을 만들고

춘추시대의 괵국 유적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호관계를 넓히고 중국의 정원예술을 발양하기 위하여 본 시가 출자하여 기타카미시에 '우호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우호정은 현재 기타카미 시민이 경관을 즐기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시는 한국의 동두천상회와도 연계하여 중국 산동성의 위해에 있는 한국기업에 본 시의 대학생과 농민노동자를 소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 월 17 일, 이토 아키라(伊藤彬)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타카미시 우호방중단 일행 30 여명이 삼문협시를 방문하시어, 두 시가 공동개최하는 우호 25 주년 기념이벤트에 참석하셨습니다. 두 시에서 100 명 정도의 친구가 한곳에 모여 우호관계의 길을 돌아 보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시의 우호 2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회에서 주중일본대사관의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공사가 두 시의 25 년에 걸친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3. 저탄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삼문협시의 노력

삼문협시는 전형적인 자원형 도시입니다. 발전과정에서 우리는 에너지부족, 환경오염과 같은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발전방향의 전환, 산업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적극적이고 유효한 업무를 전개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시 전체에서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이면서도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시의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에너지절감, 오염물질 배출 삭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본 시에서는 프로젝트의 실시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엄중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대책, 오염사업의 정지, 제한, 감소' 의 4 대 조치를 강구하여 오염된 수질과 대기 등의 생태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정책에 적합하지 않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조건 폐쇄를 명하고, 오염물질, 배출물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을 제한합니다. 오염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오염대책, 관측, 배출삭감 설비를 설치시켜 원천과 종말처리 양쪽의 대책으로 도시의 생태환경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시켜 왔습니다. '제 11 차 5 개년 계획' 기간 중 첫 4 년간에 본 시가 달성한 에너지절감, 오염물질배출 삭감 현황을 보면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비 누계에서 19.04% 절감, 목표의 89.6%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산화유황 배출량도 각각 10.8%, 23.95%를 삭감하여, 5 개년 계획 종료를 1 년 남기고 성이 정한 배출삭감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또한 공업계의 늦어진 생산설비의 연간도태 할당량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어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한 확실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2) 순환형 경제발전에 주력합니다. ‘경량화, 자원화, 재이용’ 의 원칙에 비추어 ‘석탄·전력·알루미늄의 일체화, 석탄·전력·건재, 석탄·석탄가스·화학공업, 알루미늄광-산화알루미늄-전해알루미늄-알루미늄 제품, 금의 채광·치금·정밀가공·폐기물의 재이용, 사과·과실제품(과즙, 음료, 잼, 과일과자)·과일찌꺼기 사료 등과 같이 특색 있는 순환형 산업연쇄 구축에 주력합니다.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고 불순물을 보물로 바꾸는 것’을 최대한 실현합니다.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가공산업을 예로 들면, 본 시에서는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3.5 만 톤의 전해알루미늄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개만알루미늄업, 동방희망알루미늄업, 의상알루미늄업과 같은 대형 산화알루미늄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전해알루미늄의 대규모 생산을 실현하였습니다. 더욱이 회수된 알루미늄제품을 이용한 5 만 톤의 재생 알루미늄 프로젝트도 시작되어 ‘보트사이트·산화알루미늄·전해알루미늄·알루미늄 제품의 고도가공·불용알루미늄 제품의 리사이클’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연쇄가 만들어져 400 만 톤의 산화알루미늄, 46.5 만 톤의 전해알루미늄, 14 만 톤의 알루미늄 가공, 300 만대의 자동차용 보디생산능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과 최대 규모의 승용차 보디 수출기지가 완성되었고, 국가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제품 품질감독검사센터도 본 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산, 가공에서 품질검사까지를 커버하는 과학발전의 길이 실현되었습니다.

(3)자력으로 혁신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본 시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혁신능력 향상, 전통산업의 개조와 향상, 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며, 하이테크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조준을 맞추어 혁신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재의 도입, 과학기술성과 전환, 브랜드전략 실시 면에도 힘을 쏟아 ‘혁신형 삼문협’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 경제발전 속에 혁신을 침투시켜 왔습니다. 현재 본 시는 알루미늄공업발전의 기술노선도 평가작업을 끝내고 ‘속달전동자동차’, ‘항생과기’와 같은 하이테크 사업을 실시하여 구조조정과 산업수준 향상을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능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속달교통성 에너지과기공사의 순 전기자동차나 코어부품 프로젝트는 신형전기자동차의 각종 기술성능지표가 국내의 정상급에 달하며, 현재 첫 번째 샘플차량이 이미 생산라인에 들어가 있으며 연말까지 200 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최고속도는 120km, 연속 주행거리는 200km 에 달합니다. 진정한 친환경이며 고효율의 최첨단 전기자동차입니다. 또한 녹분과업의 12 만 톤의 청과물 프로젝트는 생산라인의 능력으로는 아시아 최대규모입니다. 중국 내의 펙틴업계에서 처음으로 막기술을 이용하여 사과펙틴, 약용펙틴을 추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 내의 펙틴비스마스원료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외국제품이 장기간에 걸쳐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을 타파하였습니다. 항생과기의 Gold Potassium Citrate

프로젝트는 자력에 의한 연구개발제품으로, 금도금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첨단 수준을 보유하여 업계의 제 2 차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제품은 '신단 5 호', '신단 6 호', '신단 7 호', '상아 1 호'에도 채용되었습니다. 2 개의 연간생산량 50 만 톤의 생산라인이 완성되어 생산을 시작하면 중국 시장수요의 1/3 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연간생산액은 100 억 위안에 달하게 됩니다.

4. 몇 가지 제안

이번 회의는 우리에게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호관계를 소중히 하고 협력을 중시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문협시는 앞으로도 일본의 기타카미시, 한국의 동두천시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 갈 것이며,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더욱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곁들여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협력에 힘을 쏟아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 하여야 합니다. 협력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경제, 문화, 교육, 보건위생 등의 분야에서 각자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달성한 협력 합의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방위적 분야에의 협력, 새로운 교류 형태 구축,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교류를 실현하여 한국, 일본, 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도시 상호간에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협조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친척, 친구는 서로 왕래하며 사귀는 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호혜를 기초로, 서로가 우호적인 방문과 연락을 통하여 교류하는 장기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즉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공유, 호혜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보호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삼문협은 경제성장 면에서 대량의 물질적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해 왔습니다. 에너지 이용효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에너지절감과 이용효율 향상을 위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많은 투자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경제발전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일본, 한국과 높은 수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교류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매도시는 각국 사람들이 우호관계를 쌓아 가는데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또한 도시간에 국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삼문협시 정부와 전 시민은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우호관계를 가장 우선하여 호혜를 바탕으로 왕래를 촉진하고 한국, 일본, 중국의 삼국 국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삼국의 뜻있는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현실에 입각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일본, 한국, 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추진하여, 삼국의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더욱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우호관계가 영원하길 기원하며 삼국의 자매도시회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